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1.6

JAN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47.10원 (+2.40원)

KOSPI
4,457.52 (+147.89, +3.43%)

KOSDAQ
957.50 (+11.93, +1.26%)

국고채 10년 금리
3.396 (+0.010%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단기 모멘텀과 추세 대응의 조합 [박승진]
DIN (Doo It Now)	중국 위안화 이중 트랙과 코스피 전략 [김두언]
월간 하나채권	[1월] 같은 동결, 다른 의미 [박준우]

기업분석

KT	1월 전략 – 상반기에 7만원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홍식]
LG유플러스	1월 전략 – 길게 투자 하셔야 성과 날 수 있습니다 [김홍식]
SK텔레콤	1월 전략 – 4Q 배당 공시에 유의하세요 [김홍식]
농심	4Q25 Pre: 일회성비용으로 손익 기대 하회 예상 [심은주]

산업분석

자동차	완성차 2025년 도매판매와 2026년 목표 [송선재]
유틸리티	새울 3호기 하반기 가동 예상 [유재선]
방위산업	우주로 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I [채운샘]

Monthly & Weekly

통신서비스	KT는 이제 본격 상승 예상됩니다 [김홍식]
건설	2025년 아파트 가격 정리 [김승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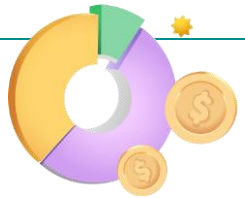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 키움증권, 롯데렌탈, 해성디에스, 알테오젠, 현대무벡스

에코마케팅, RF머트리얼즈

하나증권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1.5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단기 모멘텀과 추세 대응의 조합

실적 기반의 중장기 포지션과 단기 모멘텀 종목군의 조합: SMH, AIQ, XLE, ARKQ, BOTZ, ARKX 등을 활용한 대응

- **글로벌 수급**: 연말, 연초의 일회성 대규모 자금 이동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ETF 시장의 자금 순유입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직전 주간에 -328.4억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던 북미 주식형 ETF 시장으로 다시 +348.6억달러의 투자자금이 재유입되면서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에서만 총 +441.4억달러의 자금 순유입액이 집계되었다. 신흥국 주식형 시장의 경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수급 위축 흐름이 확인되었고,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의 경우 선진국 채권형 ETF 시장과 신흥국 채권형 ETF 시장 전반에 걸친 자금 유입 규모 감소 기조가 나타났다.
- **종목별 수급**: 미국 상장 ETF 종목들의 주간 자금 유출입 흐름에도 단기 수급 요인에 의한 자금 이동 흐름이 지속되었다. 대표 지수 추종형 ETF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이 진행되면서 S&P500 지수 추종 ETF인 SPY/VOO/IVV에 총 +123.0억달러가 유입되었고, 나스닥 ETF인 QQQ로 +35.1억달러, 미국 증시 전체에 투자하는 VTI에는 +6.8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이와 더불어 VXUS(미국 제외 글로벌), VEA(미국 제외 선진국), DIA(다우존스), JEPQ(나스닥커버드콜), IWF(대형성장주), PDP(모멘텀) 등의 ETF들도 자금 유입 상위 종목 리스트에 자리하였다. 채권형 ETF 종목군의 경우 초단기국채 ETF인 SGOV와 단기국채 ETF인 SCHO, 중기국채 ETF인 SCHR, 미국 제외 글로벌 채권 ETF BNDX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한편, 장기국채 ETF인 TLT와 LQD(IG회사채), HYG(HY회사채) 등에서는 자금이 유출되었다. 한편 연말까지 자금 유출 추세가 지속되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종목군에서는 소폭의 자금 유입 흐름이 확인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다. 주말 사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있었고, 이란 내 소요 사태와 러-우 전쟁 휴전 협상 등의 이슈들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이다. 확인이 어려웠던 주요 경제지표들은 셧다운 여파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다음주부터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도 시작될 예정이다.
-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은 여러가지 의도에서 해석되고 있다. 다양한 해석과 시나리오들의 등장 가운데, 시장 관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유가, 그리고 에너지 섹터의 주요 종목들과 관련된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대외 갈등 확장 스탠스의 경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방산주 혹은 금, 달러화의 모멘텀으로 연결될 수 있다. 더불어 베네수엘라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개입은, 향후 원유 시장의 영향력 확대로 연결 가능한 부분이다. 이미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보유국이지만, 인프라 훼손과 제재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일간 100만배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의 개입은 투자와 제재 완화를 통한 원유 생산 회복 기대로 연결 가능한 내용으로, 당장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되겠으나 공급 증가 전망 기반의 잠재적 유가 하락 요인의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예외 허가를 통해 베네수엘라 내 비즈니스를 지속해 왔던 쉐브론(CVX)과 압류 자산의 회수 기대가 높아진 엑슨모빌(XOM), 코노코필립스(COP) 등의 기업가치 회복 전망이 주가 모멘텀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주 중에는 12월 ISM 보고서(전월 수준 예상)와 고용지표(소폭 개선 전망)도 확인될 예정이다. 당장은 낮은 서베이 응답률, 높아진 항목간 대체율의 영향으로 지표들이 갈 지(之)자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겠다. 이후 전월치 수정 및 추세 확인 과정에서 펀더멘털과 통화정책 판단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당장 1월 말에 열리는 FOMC(1/27~28)까지 의미있는 방향성을 확인하기는 어렵겠으나, 통계 집계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연준 내 의견 괴리도 완화적 스탠스로 좁혀 나가게 될 것이다.
- ETF 포트폴리오의 경우 실적 시즌으로 진입하는 과정 가운데 이익 증가 기대가 가장 높은 IT 섹터 중심의 CHAT/AIQ(AI)와 SMH(반도체), 병목 우려가 지속되는 ZAP(전력)와 URA/NLR(원전) 등에 대한 중장기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주요 구성 종목들(XOM, CVX)의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XLE/VDE(에너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정책과 확장 모멘텀의 ARKQ/BOTZ(AI&로봇)와 ARKX(우주항공), 수급과 금리 기반의 XLF(금융), 방어 목적의 QDF(퀄리티 배당), GDX(금광), SIL(은광) 등도 포트폴리오 편입을 고려해볼만한 ETF 종목군으로 판단된다.

2026년 1월 6일 | Global Asset Research

DIN (Doo It Now)

중국 위안화 이중 트랙과 코스피 전략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국내외 주식시황 김두언 kimdooun@hanafn.com
RA 안범수 beomsooahn@hanafn.com

(결론적으로) 중국 디플레이션 하에서 고착화된 "명목실효환율(NEER) 강세와 실질실효환율(REER) 약세" 흐름은 한국에 이중 부담(가격경쟁과 환율동조화)이다. 약세 국면에서 동조화가 강한 원화와 위안화의 비대칭성을 감안하면, 원화의 실질가치 하락 압력은 이어질 것이다. 반면 대응전략은 명확하다. 가격을 지킬 수 있는 수출(기술, 공급제약)과 중국 내수경기와 무관한 독립적인 성장(AI, 메모리)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 간의 전면적 복원 기대가 높다. 주식투자 관점에서 가격 민감 업종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글로벌 확장 사이클에 있는 반도체 업종을 지속적으로 담아야 한다.

2026년 한국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025년의 기세를 이어갔다. 최근 20년간 첫 거래일 기준 수익률도 역대 3번째로 컸다(2.27%). 추세적 원화 약세를 동반한 외국인 주식 순매도(4.6조원)는 4천피 시대의 민낯이지만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원화도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까지의 외국인 이탈은 2026년 기대요인으로 탈바꿈될 것이다(초주식시대). 2026년 첫 개장일 원화 약세에도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약 7,400억원 순매수했다.

전면적 복원이라는 출사표를 던진 한국 대통령의 6년 만에 방중을 계기로 주식시장에서는 한한령 해제에 따른 엔터, 게임, 콘텐츠, 관광, 화장품 업종 등에 기대가 크다. 5일간의 방중 일정 중에서 대기업 미팅과 더불어 콘텐츠, 의료, 인프라, 에너지 등 벤처 스타트업 창업가와 만남이 예정돼 있다.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질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모든 기회와 위기는 외환시장에서 온다는 증시의 오랜 격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꽤 오랫동안(2020년 이후) 중국 위안화의 이례적인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수경기는 여전히 가격을 받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11월 중국 CPI는 전년 대비 +0.7%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PPI는 -2.2%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같은 달 미국 CPI는 +2.7%다. 양국 간의 물가 격차는 중국이 '환율 변동'이 아니라 '상대가격(물가)'으로 경쟁력을 회복하는 구도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위안화 실효환율은 이를 숫자로 보여준다. BIS broad(2020=100) 기준 2025년 11월 중국 NEER(명목실효환율)은 106.6로 100을 상회하지만, 중국 REER(실질실효환율)은 88.6로 100을 크게 하회한다. NEER이 강한데 REER이 약한 이유는 REER은 NEER에 상대물가(국내 물가/교역상대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저물가 및 디플레이션 압력이 누적되면서 "중국 제품의 상대가격"이 내려간다(REER 하락). 달러-위안이 안정적(혹은 강세)으로 보여도, 실제 경쟁력은 '가격'에서 강화되는 구조다.

한국 금융시장에서 이 구도가 중요한 이유는 원화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는 주요 통화들에 비해 높다. 특히, 원화 약세(절하) 국면에서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는 더 강해지는 비대칭을 보인다.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위안화 1% 변동이 원화 0.66% 변동으로 이어지며 동조화 여파는 약 9개월간 지속된다(지속 확률 88.7%). 즉 중국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저물가 고착), 중국이 수출로 출구를 찾는 구간에서는 한국도 원화와 외국인 수급 등에서 민감도가 커지기 쉽다. 정부의 구두개입으로 당분간 원화 강세 압력이 이어질 것이나, 실질적인 원화 약세 압력은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

한국 증시 전략은 '기회'와 '위협'을 분리하면 명확하다. 위협은 중국 REER 약세가 의미하는 '가격경쟁 심화'다. 중국 위안화가 실질 기준으로 싸지면(상대가격 하락), 제3시장에서의 경쟁은 환율이 아니라 단가에서 강화될 수 있고, 이는 범용적으로 가격민감 업종(중간재/소재/일부 산업재·저가 IT부품 등)의 마진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간의 수출 경합을 나타내는 ESI(수출 유사성 지수, Export Similarity Index)가 석유제품에서 0.8을 기록 중이다. ESI가 1에 가까울수록 경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원화는 약세 국면에서 위안화와 더 강한 동조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위험할 때 위안화 때문에 원화가 더 세게 흔들려서 한국 주식이 더 싸게 평가절하될 위험이 있다.

반면 기회는 중국 내수와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글로벌 사이클에 있다. 특히 AI 인프라 확장은 메모리 수급을 구조적으로 조이고 있다. 미국의 AI 관련 투자는 GDP 대비 3%에 육박한다. SK하이닉스가 2026년 생산이 사실상 sold out 상태에 있고, AI 수요가 메모리 공급 병목을 만든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HBM 시장 점유율은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SK하이닉스 57%, 삼성 22%, 마이크론 21% 등의 순이다. 이 구간에서 한국 메모리(특히 HBM)는 환율 변수보다 공급 제약과 계약 구조 등의 설명력이 크다. 따라서 환율 변동으로 가격 민감 업종보다는 글로벌 경기 확장 사이클에 있는 반도체 업종을 지속적으로 담아야 한다.

물론 주가는 미래의 기대와 우려를 선반영한다는 점에서 변수인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움직임을 살펴야 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업체인 CXMT가 HBM 패키징 시설을 2026년 말 가동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갈등 속에서 가격경쟁(저물가)과 국가 주도 공급확대(자립)를 동시에 추진 하는 중국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다. 다만, 역설적으로 적어도 2026년 말까지는 현재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초격자는 이어질 것이고, 2026년 말에는 미국의 중간선거 등 변수가 많다. 주시는 하되, 아직 가격에 반영할 시기가 아니다.

2026년 1월 5일 | Global Macro Strategy

월간 하나채권

[1월] 같은 동결, 다른 의미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국채 투자의견 (향후 1~3개월)

	축소		중립		확대
한국			■		
미국				■	

채권전략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 미국: 노동시장과 GDP의 괴리 속 연준의 인하 사이클은 유효. 이는 과잉완화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 아직은 기준금리 인하 따라 국채 금리도 하락하는 시기. 미국 국채 '확대'

• 한국: 인하 재개(2014)와 인상 전환(2017) 사이클 중 전자와 유사. 다만 아직 인하 기대 재형성되기 일러 1월 금리는 보합. 한국 국채 '중립'. 2~3월은 듀레이션 확대 고민할 시기

1. 미국: 연준에 맞서지 말 것

1) 매크로 – 고용과 GDP의 괴리에 대한 해석
   • 기업의 투자 사이클과 저해고로 설명. 상반기는 성장률이 고용 따라 하락할 위험 상존
2) 통화정책 – 차기 연준 의장과 근거 있는 인하 사이클
   • 1월 FOMC는 동결하나 인하 사이클은 유효. 차기 의장도 근거 있는 인하 단행할 것
3) 채권시장 – 아직은 연준(인하)에 맞설 시기가 아니다
   • 과잉완화 여부 논란이 커질 것. 이와 관련해 1990년대 두 번의 인하 사이클을 복기
   • 현재 기준 기준금리 3.0%까지는 과잉완화가 아니므로 국채금리 하락 전망

2. 한국: 기로에서 잠시 멈칫

1) 매크로 – 올해도 내수보다 수출
   • 과잉완화 여부 논란이 커질 것. 이와 관련해 1990년대 두 번의 인하 사이클을 복기
2) 통화정책 – 뻔한 동결. 인상 리스크는 완화
   • 성장률 추가 상향 조정 언급 가능성. 다만 3개월 내 인하 가이던스 3명 유지될 가능성
3) 이슈 – 인하 재개('13~'14)와 인상 전환('16~'17) 사이클 비교
   • (중립 대비)기준금리, (잠재 대비)성장률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인하 재개와 유사
4) 채권시장 – 중대한 갈림길에 선 금리. 1월은 보합
   • 기준금리 대비 3년 스프레드 40bp대는 적정. 향후 인하로 큰 폭 하락할 가능성에 무게

3. 투자 전략 및 금리 전망

1) 국채 듀레이션 전략 (향후 1~3개월)
   • 한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재형성될 촉매가 확인되기 전까지 듀레이션 중립
   • 미국: 근거 있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서지 않고 듀레이션 확대
2) 기준금리 및 국채금리 전망
   • 컨센서스 대비 한국 국채 '강세' 전망
   • 컨센서스 대비 미국 국채 '상반기 강세, 하반기 약세' 전망
   • 금리 전망 표는 p.15 참고

2026년 01월 06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KT (030200)

1월 전략 – 상반기에 7만원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76,000원(상향)
현재주가(1.05)	51,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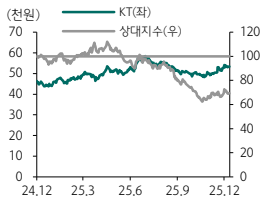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457.52
52주 최고/최저(원)	58,400/43,800
시가총액(십억원)	13,004.3
시가총액비중(%)	0.39
발행주식수(천주)	252,021.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77.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9.4
외국인지분율(%)	49.00
주요주주 지분율(%)	
현대자동차 외 1 인	8.07
국민연금공단	7.67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28,269.4	27,914.1
영업이익(십억원)	2,547.7	2,213.9
순이익(십억원)	1,867.2	1,583.3
EPS(원)	6,961	5,816
BPS(원)	71,986	75,272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6,376.3	26,431.2	28,704.8	28,887.0
영업이익	1,649.8	809.5	2,530.0	2,199.3
세전이익	1,324.1	584.7	2,566.6	2,218.1
순이익	1,009.9	470.3	1,811.0	1,591.0
EPS	3,887	1,850	7,186	6,313
증감율	(19.61)	(52.41)	288.43	(12.15)
PER	8.85	23.70	7.18	8.17
PBR	0.52	0.67	0.72	0.69
EV/EBITDA	3.41	4.31	3.64	3.57
ROE	6.05	2.85	10.74	8.89
BPS	66,498	65,177	71,260	74,416
DPS	1,960	2,000	2,400	3,8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76,000원으로 상향, 매수 할거면 빨리 하세요

KT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며 2026년 1월 통신서비스 업종 Top Pick으로 선정한다. 추천 사유는 1) 사실상 대다수의 해킹 관련 악재가 주식 시장에 알려진 상태이고, 2) 3차 상법 개정 수혜주이며, 3) 배당 분리 과세 시행으로 올해 4월 1분기 배당부터는 높은 세후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4) 일회성 항목 제거 시 2026년도에도 높은 이익 성장과 더불어 주주환원 증가가 예상되며, 5) 2024~2025년 사례를 감안하면 DPS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026년 1월엔 아마도 밸류업 기대감으로 KT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투자가라면 하루라도 빨리 실행에 옮길 것을 권한다.

신임 경영진 역시 기업가치 향상에 주력하는 상황, DPS 크게 오를 것

2025년 12월 박윤영 CEO가 선임되었다. 2026년 3월 주총을 통해 확정될 것인데 KT 이사회 CEO 선정 조건에 기업가치 제고가 첫번째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올해 실적과 더불어 주가 부양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최근 대내외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 투자가 입장에서 2026년 KT 최대 이슈는 KT DPS 상향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분리 과세가 이미 확정되고 3차 상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CEO 바뀐 뒤 2026년 4월 첫번째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결국 2026년 KT DPS는 900원으로 50% 상승할 것이다. 대다수 소액주주들이 소각도 못할 자사주를 사느니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당장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한 배당금 지급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규제 기관 정책에 모범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1Q DPS 발표는 저평가 해소 계기될 전망, 과거 주가 흐름 상기해 볼 시점

2025년 KT 주주환원수익률은 SKT와 LGU+ 대비 1~2% 가량 높게 형성되었다. 그만큼 저평가되었다는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외인 한도 소진 문제로 LGU+와 달리 자사주를 당장 소각하지 못한다는 약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주주 환원을 전액 배당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져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된다. 주주 환원 가치를 주가에 온전히 다 반영할 수 있어서다. 2024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 KT 주가는 주주환원금액 증가를 바탕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하지만 완벽하게 반영 하진 못했는데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주주환원금액 증가분 이상으로 주가가 오를 공산이 크다. LGU+ 사례를 보면 그렇다. 기대배당수익률 5% 수준까지 KT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면 2026년 상반기 내 76,000원까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2026년 01월 06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LG유플러스 (032640)

1월 전략 – 길게 투자 하셔야 성과 날 수 있습니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16,000원
현재주가(1.05)	14,56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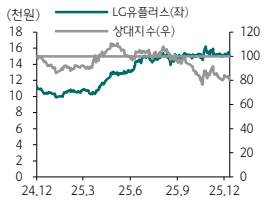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457.52
52주 최고/최저(원)	16,210/9,870
시가총액(십억원)	6,258.3
시가총액비중(%)	0.19
발행주식수(천주)	429,828.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929.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4.2
외국인지분율(%)	41.75
주요주주 지분율(%)	
LG 외 3 인	38.26
국민연금공단	7.38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5,527.1	15,762.1
영업이익(십억원)	949.3	1,163.9
순이익(십억원)	568.5	756.7
EPS(원)	1,347	1,793
BPS(원)	20,838	21,877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4,372.6	14,625.2	15,508.8	15,605.5
영업이익	998.0	863.1	899.6	1,082.9
세전이익	770.9	450.6	695.5	876.2
순이익	622.8	374.5	529.2	701.0
EPS	1,426	858	1,220	1,631
증감율	(6.12)	(39.83)	42.19	33.69
PER	7.17	12.04	11.93	8.93
PBR	0.52	0.52	0.71	0.68
EV/EBITDA	3.21	3.09	3.21	2.41
ROE	7.49	4.40	6.09	7.76
BPS	19,633	19,825	20,614	21,320
DPS	650	650	650	7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매수 의견/TP 16,000원 유지, 단 2026년 1월 상대 투자 매력도는 높지 않은 편

LGU+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16,000원을 유지한다. 기저 효과로 2026년도엔 고대했던 유의미한 연결 영업이익 성장과 더불어 DPS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전망이며 PER/PBR 지표로 보면 역사적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6년 1월 투자 매력도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해킹 관련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2025년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세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수준이지만 경쟁 업체 대비 매력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은 2026년 실적 및 DPS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기엔 다소 이르며 2026년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올라올 2026년 3월은 되어야 주가 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란 판단이다.

2026년 이익 증가, DPS 성장 기대감 주가에 입혀지려면 다소 시간 걸릴 것

2026년 LGU+ 이익 전망은 밝다. 아마도 4년만의 유의미한 이익 성장이 나타날 것이란 판단이다. 2025년 대규모 명퇴금이 반영됨에 따라 아쉽게도 높은 이익 성장이 나타나지 못한 탓이다. SKT 영업 정지 탓에 5G 가입자 증가 폭이 커 2026년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폭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며 인원 감축 효과로 인건비 및 제반 경비 정체 양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CAPEX도 2026년 3분기까지 감소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2026년 감가상각비 역시 정체가 예상된다. 이익 증가로 인한 DPS 성장도 예상된다. LGU+ 경영진이 2025년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듯이 자사주 증가 및 소각에 따른 DPS 증가는 덤이다. 배당가능주식수 감소를 감안하면 2026년 DPS 700원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상반기 중간 배당을 통해 2026년 DPS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아직은 2026년 높은 이익 성장 및 DPS 성장을 예측하기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를 추천한다.

향후 부각될 재료 감안 시 2026년 3월 말 이후에나 주가 상승 예상

LGU+는 통신 3사 중 그나마 가장 보유에 대한 부담이 없는 편이다. 해킹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노이즈가 적고 수급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이다. 단, 국내 주식 시장이 본격 상승 국면이고 개별 재료가 없어 상대적 선호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결국 연초 통신주 상승이 나타난다면 배당 분리 과세/자사주 의무 소각 등 밸류업 이슈 때문일 텐데 딱히 LGU+가 부상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2026년 높은 이익 증가 및 DPS 성장 가능성이 가늠되는 3월은 되어야 LGU+ 주가 상승이 재개될 것 같다.

2026년 01월 06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SK텔레콤 (017670)

1월 전략 – 4Q 배당 공시에 유의하세요

BUY (유지)

목표주가(12M)	55,000원
현재주가(1.05)	5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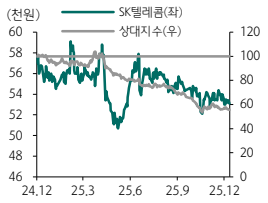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457.52
52주 최고/최저(원)	59,100/50,700
시가총액(십억원)	11,383.9
시가총액비중(%)	0.33
발행주식수(천주)	214,790.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17.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3.9
외국인지분율(%)	36.19
주요주주 지분율(%)	
SK 외 9 인	30.59
국민연금공단	7.45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7,159.0	17,738.1
영업이익(십억원)	1,141.9	1,818.3
순이익(십억원)	403.6	1,189.2
EPS(원)	1,909	5,405
BPS(원)	53,822	55,98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7,608.5	17,940.6	17,215.3	17,909.5
영업이익	1,753.2	1,823.4	1,244.2	1,872.2
세전이익	1,488.2	1,761.8	824.5	1,552.2
순이익	1,093.6	1,250.2	470.7	1,145.2
EPS	4,997	5,810	2,192	5,332
증감율	19.86	16.27	(62.27)	143.25
PER	10.03	9.50	24.18	9.94
PBR	0.94	1.01	0.95	0.90
EV/EBITDA	3.87	3.73	4.11	3.17
ROE	9.63	10.83	3.99	9.38
BPS	53,424	54,898	55,708	58,769
DPS	3,540	3,540	2,000	2,6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매수/12개월 목표가 55,000원 유지, 장기 매수로 국한 추천

SKT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가 55,000원을 유지한다. 2025년과는 달리 2026년도에는 높은 영업이익 성장과 함께 DPS 상승 전환이 예상되며 PBR 지표로 보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기 때문이다. 단 2026년 1월만 보면 SKT 투자 매력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2026년 1월 발표 예정인 2025년 4분기 배당금이 YoY 큰 폭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여전히 대다수 투자가들은 SKT 2026년 배당금이 2024년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 기대한다. 심지어 일부 투자가들은 당장 2026년 1월 지급될 2025년 4Q 배당금이 2024년 4분기 수준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1월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일정 부분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마도 SKT의 경우엔 2026년 1분기 DPS 발표가 끝나야 비로소 SKT 장기 배당 정상화 기대감이 작동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2026년 4월 이후 주가 반등을 예상한 투자로 국한할 필요가 있겠다.

연결 순이익의 50%를 배당한다는 원칙 준수 이상의 시장 기대는 과도하다는 판단

SKT는 이미 공시한 바 있지만 원칙적으로 연결 조정 순이익의 50%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여기서 조정 순이익은 일회성손익을 제거한 순이익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일회성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다. 2025년 해킹 관련 손실을 조정 순이익에서 제외하지 않았던 게 대표적이다. 향후 2026~2027년 SKT 배당금은 원칙대로 연결 조정 순이익의 50%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SKT가 과도하게 높은 실질 배당 성향을 부담이라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4년 수준의 배당금이 지급되려면 2026년이 아닌 2027년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당 성향 50%로 DPS 3,500원이 나오려면 최소 연결 영업이익이 2조원이 넘어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동전화매출액, 제반 영업비용으로 보면 일회성이익 없이 2026년 SKT연결 영업이익이 2조원을 돌파 가능성이 높지 않다. 2026년 SKT DPS는 2,600원 수준에 그칠 것이란 판단이다.

강세장이라 상대적 수익률 높지 않을 것, 6개월 이상 내다본 매수 추천

2026년 추정 실적 기준 기대배당수익률이 5%, PBR이 0.9배라고 볼 때 SKT 주가가 비싸진 않다. 다만 국내 주식 시장이 강세 기조이며 SKT가 과거와 달리 자사주 의무 소각 수혜주로 분류되기 어렵고 배당 분리 과세가 적용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아 관련주로도 부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결국 밸류업 이슈보다는 5G SA 또는 5G Advanced 도입에 따른 요금제 개편/이동전화매출액 증가 기대감이 생겨야 본격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란 판단이다. 6개월 이상을 내다본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26년 1월 6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농심 (004370)

4Q25 Pre: 일회성비용으로 손익 기대 하회 예상

BUY (유지)

목표주가(12M)	540,000원
현재주가(1.05)	42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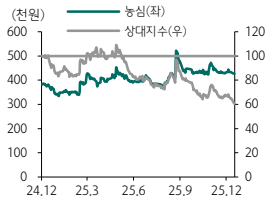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457.52
52주 최고/최저(원)	522,000/334,000
시가총액(십억원)	2,600.3
시가총액비중(%)	0.07
발행주식수(천주)	6,082.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3.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4.9
외국인지분율(%)	19.50
주요주주 지분율(%)	
농심홀딩스 외 5 인	44.24
국민연금공단	7.91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3,522.4	3,673.6
영업이익(십억원)	198.9	226.1
순이익(십억원)	181.8	204.1
EPS(원)	30,016	33,346
BPS(원)	484,446	514,874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3,410.6	3,438.7	3,521.8	3,733.0
영업이익	212.1	163.1	176.1	210.3
세전이익	231.1	217.8	211.9	250.3
순이익	171.9	157.3	163.3	186.2
EPS	28,261	25,861	26,846	30,615
증감율	48.03	(8.49)	3.81	14.04
PER	14.40	14.46	16.11	13.96
PBR	0.99	0.83	0.91	0.85
EV/EBITDA	5.41	4.99	5.54	4.45
ROE	7.26	6.17	5.96	6.45
BPS	412,814	452,565	474,658	500,519
DPS	5,000	5,000	5,000	5,00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4Q25 Pre: 시장 기대 하회 예상

4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8,899억원(YoY 4.1%), 256억원(YoY 25.2%)으로 추정한다. 별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6,638억원(YoY 0.1%), 120억원(YoY 7.5%)으로 예상된다. 일회성비용 등이 반영되면서 연결 손익은 시장 기대를 큰 폭 하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라면 총매출액(국내+해외수출)은 YoY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4분기 영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라면 판가 인상 기인해 YoY 순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출은 3월 '유럽 판매법인' 설립 기인한 매출 이전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나, 유럽 판매법인 매출(약 200억원 추정) 감안시 YoY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② 다만, 국내 손익은 금 관련 충당금 및 글로벌 광고선전비 등이 반영되면서 전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③ 해외 탑라인은 견조한 성장이 전망된다. 미주 '케데헌' 마케팅 협업 제품 판매가 9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시너지 기인해 4분기 총매출은 전년동기대비 두 자리 수 유의미한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에누리 등 할인 폭이 관건이나, 북미(미국+캐나다) 매출은 YoY 1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④ 중국 매출은 YoY 20% 내외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년 기저효과 및 커버리지 확대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2026년 연결 매출 및 영업이익 각각 YoY 6.0%, 19.4% 증가 추정

올해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3조 7,330억원(YoY 6.0%), 2,103억원(YoY 19.4%)으로 추정한다. 국내는 2025년 판가 인상 이후 손익 체력이 회복되었다. 1Q26까지 기저효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는 탑라인 성장이 기대된다. 4Q25부터 북미에서 '케데헌' 마케팅 협업 제품 판매가 온기 반영되면서 관련 효과가 연결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도 기저효과 및 적극적인 내수 부양 의지 기반한 내수 소비 회복 기인해 견조한 탑라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단기 실적은 아쉬우나, 올해 해외 성과 주목해 볼 만

4분기 실적은 다소 아쉬우나, 올해 유의미한 해외 성과가 기대된다. 현 주가는 12개월 Fwd PER 14배에 거래 중으로 조정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2026년 1월 6일 | 산업분석

자동차

완성차 2025년 도매판매와 2026년 목표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1월 05일

현대차(005380)
BUY | TP 310,000원 | CP 304,500원

기아(000270)
BUY | TP 140,000원 | CP 122,600원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강민아 minahkang@hanafn.com

현대차그룹의 2025년 도매판매는 727만대(+1%) 기록

현대차의 2025년 12월 글로벌 도매판매는 1% (YoY) 감소한 32.8만대였다. 내수 도매판매는 6.3만대(+2% (YoY)), 해외는 26.6만대(-1%)를 기록했다. 2025년 연간 글로벌 도매판매는 413.8만대(-0% (YoY))로 내수/해외가 각각 71.3만대(+1%)/342.5만대(-0%)로 마감되었다. 연간 해외판매 비중은 82.8%(-0.2%p (YoY))이다.

기아의 2025년 12월 글로벌 도매판매는 2% (YoY) 감소한 23.7만대였다. 내수 도매판매는 4.5만대(-3% (YoY)), 해외는 19.2만대(-1%)를 기록했다. 2025년 연간 글로벌 도매판매는 313.6만대(+2% (YoY))로 내수/해외가 각각 54.8만대(+1%)/258.8만대(+2%)였다. 연간 해외 판매 비중은 82.5%(+0.1%p (YoY))이다.

2025년 연간 현대차/기아의 합산 도매판매는 1% 증가한 727.4만대(내수/해외 각각 126.1만대/601.3만대, +1%/+1%)로 마감되었다.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판매가 둔화되었다.

2026년 도매판매 목표는 750.8만대(+3.2%)

2026년 현대차/기아의 합산 도매판매 목표는 750.8만대(+3%)인데, 내수/해외/특수가 각각 126.5만대(+1%)/623.3만대(+4%)/1.0만대(+67%)이다. 내수는 증가율이 +0.5%로 낮고, 해외는 신공장/신차 효과가 기대되는 미국/인도 위주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판단이다. 현대차의 목표는 글로벌/내수/해외 각각 415.8만대/70.0만대/345.8만대로 +1%/-2%/+1% 변동하고, 기아는 글로벌/내수/해외/특수가 335.0만대/56.5만대/277.5만대/1.0만대로 7%/4%/7%/67% 증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변수들의 영향력이 극도로 약화. 미래 성장동력이 주가 방향성을 좌우

2026년 합산 도매판매 목표인 750.8만대는 하나증권 예상치인 758.0만대(내수/해외/특수 127.5만대/629.7만대/0.8만대)의 99% 수준이고, 대수로는 7.2만대 적은 수치이다. 내수/해외 목표가 예상치 대비 각각 99%/99% 수준이다. 현대차의 판매목표는 예상치 대비 14.7만대 적은 97% 수준, 기아의 판매목표는 예상치 대비 7.5만대 많은 102% 수준이다.

2026년 현대차/기아의 낮은 판매 목표는 글로벌 시장 수요의 저성장과 경쟁 심화라는 최근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실적 변수에서도 환율과 관세라는 외부적 요인의 영향력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이를 주가 측면에서 해석하면, (1) 물량(Q)/판가(P)/비용(C)로 대변되는 기존 산업 변수들의 영향력은 극도로 약화되고, (2) 자동차 산업 내에서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HW 관점)와 SDV/자율주행차(=AI 관점)에서의 진전이 ASP 및 주가 Multiple을 상향시키는 요인으로서 영향력이 커지며, (3) 보유 중인 자동차 기술/공급망을 기반으로 로보택시/로보틱스/AAM 등 성장 산업들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속도가 주가 방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들로 자리매김하는 구도가 강화될 것이다.

2026년 1월 6일 | 산업분석_Update

유틸리티

새울 3호기 하반기 가동 예상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1월 5일

한국전력(051600)

BUY | TP 65,000원 | CP 49,850원

2025년 4분기 이용률 75% 추정. 2026년 추세는 상저하고 전망

2025년 4분기 원전 이용률은 연중 가장 낮은 75%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예방정비 계획 및 실적으로 역산한 수치다. 이미 전력통계월보 10월 발전량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10월~11월 전력거래량을 보면 전년대비 이용률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 예정대로 정비를 마친 호기만큼 일정 기간 지연된 호기들도 확인되고 있어 2026년 1분기에도 80% 초반 수준의 높지 않은 이용률이 예상된다. 아직 연내 예방정비 일정이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며 만약 새로운 차수의 정비 일정이 갱신될 경우 이용률 추정치는 추가로 하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예정된 일정을 종합하면 연평균 이용률은 80% 초반으로 예상된다.

새울 3호기 운영허가 획득. 2026년 하반기 상업운전 기대

2025년 12월 30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28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12월 19일 회의에서 같은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보완 요구로 심의가 미뤄졌지만 더 지연되지 않고 통과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연료장전을 시작으로 약 8개월 가량 출력상승시험, 간이정비 등 성능시험을 거쳐 2026년 8월 상업운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5년 말 기준 태안화력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노후 석탄화력 설비가 매년 2기 이상 이탈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저전원 비중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새울 3호기에 이어 후속 4호기가 도입되는 시점까지 발전 Mix의 급격한 악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앞두고 전원Mix 관련 공론화 진행 중

2025년 12월 30일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 계획 가운데 일부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것이 핵심 주제다. 지난 11차 전기본에서는 2035년까지 SMR 1기, 2037년~2038년 대형 원전 2기 도입 계획이 반영되었으며 이 중 대형 원전에 대한 계속 추진 여부가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토론회 포함 향후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직 대형 원전 계획이 원전 부지 공모 이전 단계에 머물고 있고 이번 정부 임기 내에는 13차 전기본까지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공론화 결과에 따라 기존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2026년 1월 6일 | 산업분석_Update

방위산업

우주로 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I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1월 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BUY I TP 1,230,000원 I CP 1,012,000원

현대로템(064350)
BUY I TP 283,000원 I CP 198,800원

한국항공우주(047810)
BUY I TP 135,000원 I CP 124,400원

Analyst 채운샘 unsam1@hanafn.com

우주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우주발사체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우주 시장규모는 약 800조원으로 추정된다. 다운스트림(지구관측, 위성통신, 위성항법 서비스 등) 시장 비중은 약 87% 수준이며 나머지는 업스트림(위성, 탐사선 등의 탑재체와 탑자체를 궤도 발사하는 우주발사체) 시장으로 구성된다. 업스트림 내에서 발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전체 시장 대비 비중은 약 3%에 불과하다. 다만 다운스트림 시장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인프라라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도가 높다. 또한 글로벌 궤도발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총 329회의 발사 시도가 있었고 이 중 321회가 궤도에 도달했다(YoY +24.4%). 국가별로 보면 미국 181회, 중국 92회로 합산 83%를 차지한다. 기업별로 보면 SpaceX가 165회로 압도적이며 Rocket Lab은 18회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국영계열 우주발사체가 높은 빈도로 운영되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우주발사체 시장은 소수 사업자들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한국 우주발사체 토대를 세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초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KSR-I(1993), KSR-II(1998), KSR-III(2002) 등 과학로켓 개발을 통해 기반 기술을 축적했다. 2013년에는 세 차례 시도 끝에 나로호(KSLV-I) 발사에 성공하며 100kg급 위성의 궤도 투입을 완수했다. 이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3단 액체 발사체로 설계, 제작, 시험 전 과정을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 한국은 2027년까지 누리호 반복 발사를 통해 우주발사체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2032년 달 임무를 목표로 차세대발사체 개발(2.3조원 규모)도 추진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과제: 글로벌 기업과의 우주발사체 기술 격차 축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 및 차세대발사체 개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5년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누리호 개발 전주기(설계, 제작, 발사 운영) 기술에 대한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2032년까지 누리호를 직접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확보했다. 과거 한국의 우주발사체 사업은 개발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민간이 기술을 이어받아 kg당 발사단가, 탑재중량, 신뢰성 등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를 얼마나 줄일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한편 3Q25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산업 관련 수주잔고는 약 1.1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연결자회사를 포함하면 수주잔고는 최소 1.5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숫자만 놓고 보면 Rocket Lab(시총 58조원) 수주잔고(11억달러)와 유사한 규모이다. 한국의 우주산업 정책과 예산 상당 부분이 발사체에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 관련 수주잔고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6년 01월 06일 | 산업분석_Update

통신서비스 1월 투자 전략

KT는 이제 본격 상승 예상됩니다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1월 05일

SKT(017670)
BUY | TP 55,000원 | CP 53,000원

KT(030200)
BUY | TP 76,000원 | CP 51,600원

LGU+(032640)
BUY | TP 16,000원 | CP 14,560원

1월 투자 매력도 '보통'으로 유지, 하지만 종목별 투자 매력 차이 크다는 판단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단 2026년 1월 단기 투자 매력도는 보통으로 제시한다. 물론 4분기 실적 부진, 규제 리스크 상존, 5G 추가 주파수 할당 지연 등은 이미 알려진 악재이다. 오히려 서서히 배당 분리 과세 및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밸류업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통신 3사 중 2026년 유의미한 DPS 또는 주주 환원 금액 증가를 나타내고 높은 주주환원 수익률이 기대되는 업체가 KT 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다. 연초엔 통신 3사간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며 당분간 KT 위주로 매수에 임할 것을 추천한다.

1월 이슈는 밸류업 정책 될 전망, 특히 자사주 의무 소각 법제화 가능성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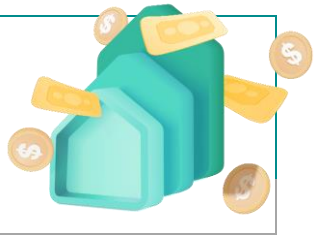
1월 통신 이슈는 많지 않다. 1) KT/SKT 새로운 신임 CEO 선임 후 경영 전략 발표, 2) 미국 어퍼 C 밴드 주파수 경매안 사업자 의견 청취 기간 종료에 따른 주파수 경매 본격화, 3) 과기부 해킹 관련 최종 조사 발표 및 과징금 부과, 4)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논의, 5) 4분기 실적 프리뷰 등이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보면 딱히 국내 통신 3사 주가가 크게 오를만한 재료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미국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도입을 위한 투자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선 LTE 주파수 재할당만 이루어졌을 뿐 신규 주파수 경매가 언제 이루어질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점이 실망스럽다. 결국 통신 3사 5G 요금제 개편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 2026년 상반기에도 통신주 Multiple 확장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과징금 반영으로 통신사 4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란 점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결국 2026년 초 통신서비스 업종에서는 자사주 의무 소각 법제화 및 배당 분리 과세 수혜주 정도를 주가 상승 재료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KT 외엔 딱히 매력적인 종목이 부재해 섹터 전체적으론 수혜가 제한될 전망이다.

1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KT>LGU+>SKT, 이제 KT는 적극 매수 추천

통신서비스 업종 12개월 Top Pick을 KT로 유지함과 동시에 1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KT>LGU+>SKT로 선정한다. 월간 Top Pick을 KT로 제시하는데 사실상 해킹 관련 악재는 널리 알려진 반면 밸류업 관련 호재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외인 한도 및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슈로 2026년도엔 KT가 주주 환원을 전액 배당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행보는 결국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를 이끌 것이다. 향후 시중 금리 인하로 세전 기대배당수익률 5% 수준까지 KT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면 76,000원까지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2025년 아파트 가격 정리



건설 Weekly | 2026.1.6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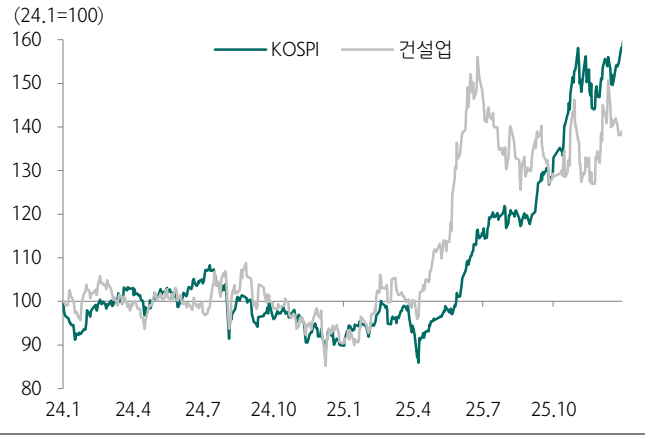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5.4%p 하회했다. 지난 2주 간 수급은 기관과 외인이 매수, 연기금이 매도했다. 코스피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한 가운데, 건설은 수주 부진(삼성E&A), 단기간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아이에스동서) 등이 있었다.
- 지난 주요 지표로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6.3으로 한주 만에 하락했다(-0.1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8주 연속 상승했다(+0.07%), 전세가는 29주 연속 상승했다(+0.09%). 수도권 매매가는 44주 연속 상승(+0.12%), 전세가도 45주 연속 상승(+0.11%)했다. 서울 매매가격은 49주 연속 상승(+0.20%), 전세가는 46주 연속 상승(+0.14%)했다. 지방광역시와 기타지방은 모두 9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3%). 전세가격은 지방광역시 22주 연속 상승, 기타지방 18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7%). 광역시별로 인천(+0.03%), 부산(+0.05%), 울산(+0.16%), 광주(+0.01%)가 상승했으며, 대구(-0.02%), 대전(-0.02%)은 하락했다.
- 청약홈에서의 청약은 15건(대전, 경기이천/용인, 부산, 경북안동, 인천영종, 울산, 강원강릉)이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인천영종에서 크게 미달했다. 이번 주 1순위 청약은 3건(인천영종, 전북전주, 전남해남)이다.
-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12.29)에 따르면 2025년 누계로 전국 매매가는 1.02% 상승, 전국 전세가격은 1.32% 상승했다. 수도권은 매매가가 3.29%, 전세가가 2.28% 상승했으며, 지방은 매매가 1.13% 하락, 전세가 0.41% 상승했다. 서울은 매매가 8.71% 상승, 전세가 3.68% 상승했으며, 경기는 매매가 1.37% 상승, 전세가 1.97% 상승했다. 광역시별 매매가는 인천 -0.65%, 부산 -1.11%, 대구 -3.81%, 광주 -1.96%, 대전 -2.17%, 울산 +2.10%이며, 전세가는 인천 +0.35%, 부산 +2.38%, 대구 -1.11%, 광주 +0.56%, 대전 -1.70%, 울산 +3.74%다. 2025년 가격 특징으로 1)서울의 거주비용도 올랐지만 그 이상으로 투자 수요가 가격을 견인, 2)광역시의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3)지방의 전세가격 상승 전환이다. 2026년에도 이러한 전세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는 지역(특히 광역시)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6년은 주택주 매수 시점의 해로, 지표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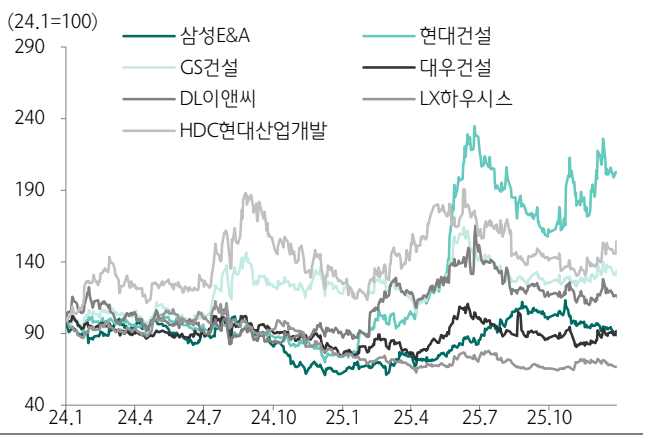
주간 건설업 주가차트

도표 1. KOSPI 및 건설섹터 수익률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2. 건설업 커버리지 종목 주가차트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1/5	128,500	138,100	7.47%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1/5	946,000	1,012,000	6.98%	• 4Q25 Preview 매출액 8.6조원(YoY +78.7%), 영업이익 1.2조원(YoY +30.9%) 전망 • 호주, 이집트 등 비(非)폴란드 향 K9과 천무 매출이 전년보다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
한국전력 (015760.KS)	1/5	46,500	49,850	7.20%	• 지역별 요금차등제, 평균 전력판매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영업현금흐름 개선 기대 • 전기요금 동결에도 국제 유가 하락하며 전력조달비용 감소세 지속
키움증권 (039490.KS)	1/5	301,500	299,000	-0.83%	• 브로커리지와 트레이딩을 중심으로 견조한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기조에 맞춰 배당성향 상향 가능성 높아
롯데렌탈 (089860.KS)	1/5	30,000	29,900	-0.33%	• 중고차 렌터카가 월간 1,000대 가량 순증하며 이익 기여도를 높여가고 있어 • 2026년에는 신차 렌터카의 P와 Q가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
해성디에스 (195870.KS)	1/5	54,800	51,800	-5.47%	• D5 패키지기판 공급 확대로 패키지 기판 사업 부문 턴어라운드 기대 • 전장 리드프레임 전방 수요 완만한 회복 지속
알테오젠 (196170.KQ)	1/5	457,000	468,500	2.52%	• 피하주사 전환에 대한 니즈가 투약 편의성 개선, 바이오시밀러 방어의 이유로 증가 중 • 파트너사의 지속적인 유입 전망, 공장 증설에 따른 제품 수익 증가 기대
현대무벡스 (319400.KQ)	1/5	23,700	24,000	1.27%	• 해외 사업 확장 및 유지보수 매출 확대로 점진적 수익성 개선 전망 • 국내 기업향 에너지저장장치, 화장품, 가전 관련 물류 자동화 수주 기대
에코마케팅 (230360.KQ)	1/5	13,910	15,900	14.31%	• 베인캐피탈, 공개매수 추진. 공개매수 완료 후 상장폐지에 나설 계획 • 공시상 전량 매수로 안내돼 단기 성사 불확실성이 낮은 편
RF머트리얼즈 (327260.KQ)	1/5	25,550	25,350	-0.78%	• AI 산업 성장과 공급망 탈중국 기조 덕분에 실적 우상향 지속 전망 •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따라 중국산 부품 퇴출의 수혜 가능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6.78%	+1.09%p	+6.78%	+1.09%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에스피지 (058610.KQ)	1/5	82,700	80,000	-3.26%	• 대표적인 정밀기계부품인 유성/SH/SR감속기를 모두 양산 가능한 국내 독보적인 기업 • 미국 주요 로봇 메이커의 4족 보행로봇에 에스피지의 유성감속기 적용 시작
삼성전자 (005930.KS)	1/2	119,900	138,100	15.18%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1/2	651,000	696,000	6.91%	• 3Q25 Review 매출액 24.5조원(YoY +39.0%), 영업이익 11.4조원(YoY +62.0%) 기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KS)	1/2	1,695,000	1,713,000	1.06%	• 신규 수주 기반으로 5공장 안정적인 ramp-up, 1분기 초 6공장 증설 계획 발표 예상 • 1월 12~15일 개최되는 JPM healthcare에서 향후 사업전망 main track에서 발표 예정
KB금융 (105560.KS)	1/2	124,700	126,800	1.68%	• 경쟁은행 대비 확대되었던 PBR gap이 좁혀지면서 가격 매력 재부각 • 2026년에도 추정 순익 약 5.9조원 내외를 기록하며 증익 추세 굳건히 지속될 전망
삼성전기 (009150.KS)	1/2	255,000	270,000	5.88%	• 컴포넌트 사업부 외에도 패키지 및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우상향 가시성 확보 • 고부가 AI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
하이브 (352820.KS)	1/2	330,000	337,500	2.27%	• BTS, 26년 봄 신보 발매를 시작으로 연중으로 대규모 투어 진행 예정 • 글로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다양한 현지 아티스트 데뷔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1/2	114,400	124,400	8.74%	• 일회성 비용 부재와 완제기 수출 부문의 일시적 믹스개선으로 3Q25 수익성 개선 • 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한국금융지주 (071050.KS)	1/2	161,700	167,700	3.71%	•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 IMA 출시 이후 추가된 조달재원을 기반으로 레버리지 및 운용자산 규모 확대 기대
S-Oil (010950.KS)	1/2	83,000	84,600	1.93%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지역난방공사 (071320.KS)	1/2	96,400	97,700	1.35%	• 3Q25 Review 매출액 7,582억원(YoY +29.6%), 영업이익 894억원(YoY +209.6%) 기록 • 열요금 변동, 판매량 증감, 원가 변화고 세 가지 변수 모두 양호한 방향 나타내는 중
한국단자 (025540.KS)	1/2	67,300	69,900	3.86%	• 자동차의 전장화/전동화에 따른 수혜와 고객사 다변화 기대 • 자동차용/전자용 커넥터를 기반으로 반도체용/ESS용/로봇용으로 확장 중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1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88%	-1.82%p	+3.88%	-1.82%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AI테크 TOP10 (485540.KS)	2025.07.22	12,290	14,805	20.46%	•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 핵심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Magnificent7와 AI5 기업들에 집중하는 테마 ETF • 상용화의 영역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버린 AI, 신제품 교체 수요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 중국 수출 규제 완화와 트럼프 정부의 AI 육성 정책 모멘텀도 긍정적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590	35.31%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WON 미국빌리어네어 (489290.KS)	2025.02.03	13,065	15,540	18.94%	• 미국 최상위 억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 미국에 상장된 주요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 Tech,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필수소비재의 5개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5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407830.KS)	2024.09.25	9,690	16,585	71.16%	• 대체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 • 전문화와 분업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업들을 편입. 테슬라와 구글, 샤오미, 마이크로소프트, TSMC, 텐센트 등이 주요 구성 종목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49.14	365.86	12.18%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HLD (미국 방산 기술 주식)	2025.06.16	58.83	65.99	12.17%	• 전통 방산기업들과 더불어 AI,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연료시스템 등 첨단 군사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각국 정부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수혜 전망. 미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수급 모멘텀 기대
PAVE (미국 인프라 주식)	2025.11.124	38.07	49.26	6.05%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QGRO (퀄리티 성장주)	2025.01.03	101.56	116.69	14.90%	• 성장성과 퀄리티를 함께 갖춘 중대형주로 구성된 ETF •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심 증가. FOMC와 펀더멘털 퀄리티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 우위 보여줄 전망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4	1.5	1.6	1.7	1.8	1.9	1.10
	▪ 일본 12월 S&P글로벌 제조업 PMI F(50p, 11월 49.7p) ▪ 중국 12월 레이팅독 종합 PMI(51.3P, 11월 51.2p) ▪ 중국 12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52.1P, 11월 52.1p)	▪ 미국 12월 ISM 제조업 PMI(E 48.4p, 11월 48.2p) ▪ 미국 12월 ISM 구매물가지수(E --, 11월 58.5p) ▪ 일본 12월 전년대비 본원통화(E --, 11월 -8.5%)	▪ 미국 12월 ADP 취업자 변동(E 5.5만건, 11월 -3.2만건) ▪ 미국 주간 전주대비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E --, -5.00%) ▪ 유로 12월 전년대비, 전월대비 CPI(E --/--, 11월 2.10%, -0.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E --, 전주 --) ▪ 미국 10월 전월대비 내구재 주문 F(E --, 9월 -2.20%) ▪ 미국 10월 전월대비 제조업수주(E -1.00%, 9월 0.20%)	▪ 미국 12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E 6만건, 11월 6.4만건) ▪ 중국 12월 전년대비 CPI (E --, 11월 0.70%) ▪ 중국 12월 전년대비 PPI (E --, 11월 -2.2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미국 12월 전년대비 CPI/Core CPI (E --/2.70%, 11월 2.70/2.60%) ▪ 일본 11월 BoP 경상수지 (E --, 10월 2.8조엔)	▪ 미국 11월 전월대비 소매판매(E 0.40% / 0.00%) ▪ 미국 11월 전년대비. 전월대비 PPI(E 2.60%, 0.30%) ▪ 한국 1월 실업률(E --, 2.70%)	▪ 미국 뉴욕주 1월 제조업 지수(E --, 12월 -3.9p) ▪ 일본 12월 전년대비 PPI (E --, 11월 2.70%)	▪ 미국 12월 전월대비 광공업생산 (E --, 11월 0.20%)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